



서구청 앞에 설치돼 16일부터 시범 운행되는 '정류장 안내단말기'.

시내버스 시간 맞춰 탄다

광주시내 200곳 '도착안내 단말기' 설치 ARS·휴대폰·인터넷으로도 정보 제공

광주시는 시민들이 타고자 하는 시내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알려주는 '버스도착 안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을 도입, 16일부터 서비스한다.

시는 이날부터 휴대전화나 인터넷 접속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정류장 안내 단말기와 자동응답전화(ARS)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6월까지 주요 공공시설과 버스 이용자가 많은 정류장에 안내단말기 200개를 설치한다. 시는 우선 서구청과 운전호남대역 입구 정류장 4개소에 안내단말기를 설치

해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5700'번을 누른 뒤 무선 인터넷(magic-n, Nate, ez-)에 접속하면 된다. 접속이 안될 경우엔 무선인터넷 접속후 http://wap.gjcity.net를 입력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bis.gjcity.net)를 통해서도 노선·도착시간·버스위치·환승정보 등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하는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613-57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또 정류장 안내단말기를 통해서도 노선·도착시간·버스 위치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은 각 시내버스에 차량 단말기를 장착시킨 뒤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CDMA와 무선랜 통신망을 통해 버스위치·정류장 도착시간·운행상황 등을 시민·운전자·버스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타고자하는 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대중교통 서비스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제2순환도로 4구간 개통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덕동동 유덕영업소 광장에서 열린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 개통식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이연구 금호건설 사장, 이돈호 제2순환도로 대표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서창IC~산월IC까지 6.5km의 4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제2순환도로 37.66km 가운데 94%인 35.29km가 연결돼 신창·수완지구와 첨단·하남산단 등의 개발촉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덕동동 유덕영업소 광장에서 열린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 개통식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이연구 금호건설 사장, 이돈호 제2순환도로 대표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서창IC~산월IC까지 6.5km의 4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제2순환도로 37.66km 가운데 94%인 35.29km가 연결돼 신창·수완지구와 첨단·하남산단 등의 개발촉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하철 도착역 상황 '한눈에'

화상전송 설비 설치 안전사고 미리 대비

광주지하철에 기관사들이 운전석 모니터 화면을 통해 도착할 역 내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대역차 화상전송설비가 설치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5일 "지하철 1호선 1구간에 대한 대역차 화상전송설비 설치 작업이 완료돼

시운전 중"이라며 "1호선 2구간에 대한 설치와 시운전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동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역차 화상전송설비는 기관사가 운전석 모니터를 통해 400m 전방에서부터 승강장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설치된 승강장 확인용 모니터는 도착 후에만 승강장 감시가 가능해

승객이 선로에 떨어져 있어도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화상전송설비 구축으로 역사내 화재와 투신자살, 승객 부주의로 인한 추락 사고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지하철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행원 사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대형급수관 터져도 수돗물 나온다

광주시의 수돗물 공급이 직접 공급 방식에서 배수지(配水池)를 통한 간접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그동안 직접 공급 방식이었던 수돗물 공급체계를 배수지를 통한 간접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공급하는 것으로, 4만~5만급 배수지에서 물이 공급되는 만큼 급수관 접합식으로 바뀌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그동안 직접 공급 방식이었던 수돗물 공급체계를 배수지를 통한 간접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급하던 것을 배수지에 일단 모은 뒤

동과 북구 운암동 일대 8만 가구에 대한 배수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경우 시내 전 지역이 간접급수 지역으로 바뀐다.

한편, 시는 각화 제2배수지 완공에 따른 배수방식 전환에 맞춰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북구 오치·매곡·문흥동 일대 4만2천 세대의 수도관을 세척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수 중단과 이물질 발생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놓을 것을 당부했다.

/채희정기자 chae@



환상적인 '꼬마 디자이너 마을'

이러 마을'은 어린이들이 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제작체험을 할 수 있게 구성된다.

광주디자인센터가 오는 10월 개관할 '꼬마 디자이너 마을' 개념도. 센터 2층 234평의 공간에 25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꼬마 디자이너 마을'은 어린이들이 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제작체험을 할 수 있게 구성된다.

<광주시청 제공>

조선대 '장미축제' 보러 가세

23·24일 불거리 다양

조선대(총장 김주훈)가 마련한 '제 5회 장미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4(목)까지 대학 내 장미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개막식은 23일 오후 6시 열리며, 조선대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 체조 시범, 어린이 트리오 '프리티'와 일렉트릭 밴드 '스트리츠캣' 초청 공연, 장미를 테마로 한 마술쇼,

B-boy 댄스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불거리가 제공된다. 개막 축하 공연에 이어서는 대학생과 지역 주민이 참가하는 CMB방송의 '열전 동네방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이틀째인 24일에는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오후 1시~4시) ▲의과대학 관현악반의 작은 음악회(오후 8시~9시) ▲장미 사진콘테스트, 캐리커처 사진촬영,

페이스 페인팅, 즉석사진촬영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장미원은 9억3천만여원을 들여 의과대학 앞 5천299㎡(1천603평)의 부지에 조성됐으며, 2003년 5월 24일 개장했다. 크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하이브리드계, 한 줄기에 여러 송이가 뭉쳐 피는 플로리분다계, 꽃이 화려하고 많은 송이가 흐드러진 덩굴형 장미 랜드스케이프계 등 152종 1만4천306그루의 장미가 식재돼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동구청 다양한 인규유입책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대학생에 문화상품권

광주시 동구청이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생긴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내놴다.

동구청은 15일 "지난 3월께 공포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침' 등에 관한 조례'와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침' 등에 관한 조례 시행지침'에 따라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출산용품·무료예방접종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동구 지역에 위치한 대학기숙사에 전입신고한 뒤 3개월이 지난 대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 상품권·도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 여건도 개선을 위해 '사립 외 국어고등학교' 유치와 '동구 인제육성장학재단'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동구는 예산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5월부터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평동산단 금형집적화단지 내달부터 분양

광주시는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중 금형집적화단지 16만5천125㎡(5만평)를 다음달부터 분양한다고 15일 공고했다.

분양가는 조성원가(㎡당 28만6천390원)보다 11만940원이나 싼 ㎡당 17만5천450원(평당 58만원)이다.

시는 500평 이상 신청 면적에 대해 분할 공급할 예정이며, 다음 달 4일부터 분양계약이 가능하다.

시는 입주 기업체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

시는 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며, 공장건축 등에 대한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광주시 산업고용과 613-3821.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신 고	
●교통안내	●가정법률상담소	●학교폭력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보건복지위원회 상곡역상담소 671-4050	국번없이	112
철도안내 1544-7788	광주 YMCA 527-0011	전남경찰청	226-0112
대한항공 222-2000	●24시간 청소년상담	광주지검	233-2828
아시아나항공 221-6300	국번없이	●사이버센터	(02)11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국세종합상담센터	●가정폭력	
	국세청 1588-0060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병무민원상담	여자경사기동대	363-0155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소비자 상담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YMCA 232-6133	●광주이동학대방센터	
	광주 YMCA 524-5400	국번없이	1391
●당직번호(16일)	주부교실 232-0643-4	●광주노인학대방센터	
강동욱 233-3119	복합소비자지원센터 369-9881	국번없이	1389
●법무시제 법률상담(16일)			
김승연 370-0600			

광주일보

“아빠가 신문을 보니 아이도 신문을 보더군요”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면 아이도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내가 아내를 도와주면 아이도 엄마를 도와주고

내가 신문을 펼치면 아이도 신문을 펼치고...

어른을 꼭 닮는 게 아이들이죠.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는 신문, 생생한 논술교재가 되기도 삶의 교과서가 되기도 하는 신문, 신문을 늘 곁에 두고 읽는다면 평생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신문 보는 습관, 내 아이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유산입니다

영화 '날아라 허풍꾼'의 아버지 정천연, 아들 정주연